

그리고 감성도시까지 그 개념과 발전과정의 변화를 가져왔다.

생태도시는 지속가능한 생태도시라는 관점에서 그 개념을 정의하였고, 유형구분을 통해 현대도시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. 생태도시, 문화도시를 위한 평가지표 설정을 위해 문헌과 선행연구를 분석한 결과 국가 및 전문가 차원에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었으며, 2000년대 초반에는 생태문화사회가 강조 되고 있었다.

## 2. 생태문화도시 개념 정립

### 가. 생태문화의 정의

‘생태 문화’라는 정의는 과거 또는 현재의 전통 문화를 결합한 것으로 생태계를 모든 삶의 기초로 강조하며 생태문화를 고려하여 토지이용계획 및 공동체 가치를 측정하는 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. (www.ecoculturevillage.org)

생태 문화란 개인이 더 큰 문화와 어떻게 관련되어 있으며 그 문화가 주변 환경에 어떻게 영향을 받았는가를 의미한다.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에 살고 있는 십대 청소년들은 뉴욕 거리에 살고 있는 십대 청소년과 다른 문화적 규범을 경험하게 되는데, 유사점이 있을 수 있지만 뚜렷한 차이점이 있다(지능에 대한 사회 및 생태 문화 영향).

유네스코문화는 지속 가능한 도시 개발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요소이다. 지속 가능한 도시 성장을 위한 노력은 문화와 전통의 보존이 방정식의 중심이 아니라면 더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. 문화 도시의 미래 : 지속 가능한 도시 개발을 위한 문화에 관한 세계 보고서는 작년의 Habitat III 회의에서 채택 된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와 New Urban Agenda가 UNESCO의 우선순위를 무시하지 않도록 보장하는